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의 지원효과 검증

김경필¹ · 김성훈^{2*}

¹한국농촌경제연구원, ²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The analysis on governmental subsidizing program for the distribution cost of agro-food exportation

Kyung-Phil Kim¹, Sounghun Kim^{2*}

¹Center for Agro-Food Policy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130-710, Korea

²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Received on 5 February 2011, revised on 20 February 2011, accepted on 9 March 2011

Abstract : Korean government has executed some programs to support producers and/or exporter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Especially, governmental subsidizing program about the distribution cost for agro-food exportation shows positive effects. However, this subsidy should be changed or partly abolished due to the low effectiveness of subsid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subsidy and to present the agro-food products with the low effects of subsidizing program.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ubsidy for several products, including Ginseng drinks, Paprika, and Chrysanthemum, might be considered to be stopped due to low effectiveness.

Key words : Agro-food export, Governmental subsidy,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subsidy

I. 서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¹⁾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되며, 1990년 과실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까지 총 2,814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예산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며,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출 농축산물의 품질 제고 등 질적 수출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물류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저가 수출 또는 덤핑 수출을 야기하여 수출경쟁력 향상 기반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이 중복되며, 지자체별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출업체별 수출원가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해당 품목의 해외시장 판매가격 교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WTO/DDA 협상 진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조금 지원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³⁾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규모의 축소도 현실화되고 있다.⁴⁾ 또한 정부에서는 향후 수출물류비 보조

- 1)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액은 해외시장개척사업 198억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27억 원, 수출정책자금 지원 4,026억 원임(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8년 지원액 기준).
- 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은 WTO 이행특별법의 농업·농촌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며, 수출물류비 지원,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수출농산물 검역지원으로 구분되며, 2008년 지원액은 382.8억 원임(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3) DDA 농업의장 초안(2008년 2월)에 따르면 수출보조금은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개도국 우대시 2021년까지 철폐해야 함.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지원 가능함.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6746

E-mail address: soungunkim@cnu.ac.kr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출인프라 기반 강화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별로 물류비 지원이 수출실적 증감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품목별로 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물류비 지원과 수출 증가의 관계가 적은 품목들은 물류비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폐지하고 물류비 지원성과가 큰 품목은 가능한 물류비 지원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물류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⁵⁾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수출물류비 등 수출지원 제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용규 외(2004)는 WTO/DDA 협상 결과로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이 철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동안의 수출물류비 지원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였다. 김병률 외(2005)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출 물류비 지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DDA 협상 이후의 수출보조 철폐를 대비하여 지자체의 물류비 직접 지원 대신 수출단지의 생산, 유통시설 설치·보완 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문배 외(2007)는 수산물 수출 물류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최세균 외(2009)는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용선 외(2009)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배 수출물류비 지원이 오히려 해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물류비 지원체계의 종합적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감축 내지는 폐지하여야 하는 물류비 직접 지원 제도 대신 수출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에 보다 집중하여야 함을 제안했다.

- 4)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물류비지원은 2007년 표준물류비의 25% 지원이 2008년과 2009년에는 20% 지원으로 감축되었고, 향후 추가 감축시켜 나갈 계획임.
- 5) 수출물류비 지원 및 폐지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출성과만을 기준으로 삼고, 국내 농업의 생산액이나 농가소득의 영향력, 품목별 주산지의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보조의 의미도 감축될 것이므로 수출물류비 지원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품목결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함.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수출지원 제도의 현황 분석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으나 수출물류비 지원성과 분석에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품목별 지원실적과 수출실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출지원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품목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차별성을 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실적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증감의 관계 유무를 도출하는 것이다.

II. 수출물류비 지원 동향

1. 지원 개요⁶⁾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지원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정책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축산산물 판매촉진사업에 속하며,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물류비 및 품질인증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수출교육 및 컨설팅, 수출단지조성 및 경영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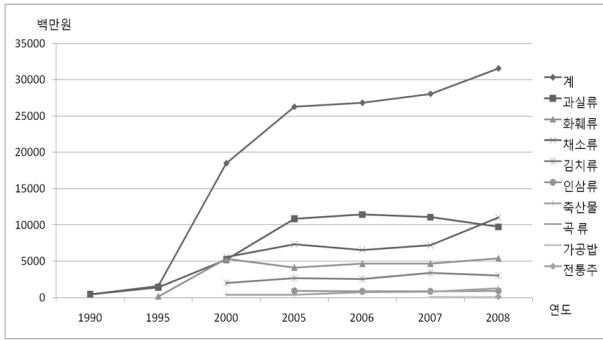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물류비지원 대상은 단일부류 15만 달러 이상 또는 2개 부류 2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 또는 생산농가이다. 물류비 지원방식은 기본물류비와 인센티브를 수출물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물류비의 경우 품목별 국가별 지원 단가(표준 물류비의 20%)를 수출 물량에 곱하여 지원하고, 인센티브는 기본물류비 지원액에 추가하여 지원한다.⁷⁾

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은 2008년 현재 12개 부류 100여 개이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곡류, 가공밥, 장류, 차류, 식재료가 해당된다.⁸⁾

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8)

7) 표준물류비는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업체별로 실제 조사한 결과를 평균하여 산정함. 인센티브 지원 대상과 지급 비율은 수출 선도조직(15%), 원예전문생산단지(5~12%), 휘모리 브랜드(15%), 신시장 개척(30%) 등에 해당되는 업체나 농가임.

8) 지원대상 품목 추가는 해당 품목 수출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대상품목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안이 마련됨.



Sourc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Fig. 1. The trend of government support for exporting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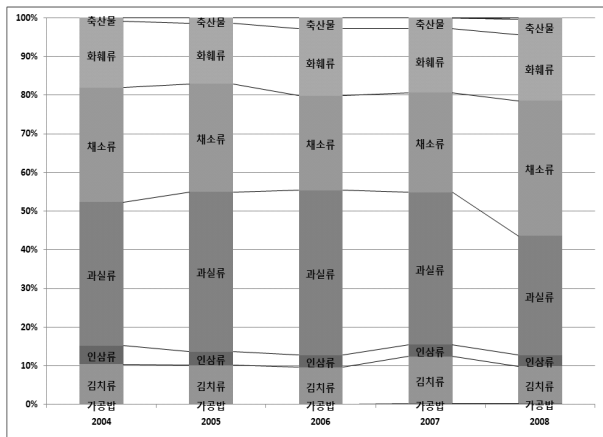


Fig. 2. The trend of ratio of product groups supported by government program.

물류비 지원 단가는 품목별 수출국별 물량기준 “원/kg” 단가를 산정하는데, 품목별·업체별로 선별, 포장, 국내외 운송비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국내 운송비는 부산단지에서 부산항 기준으로 기본 단가를 설정한 다음 지역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외 운송비는 부산항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미주, 유럽, 극동 러시아로 7개 국가군 기준으로 한다.⁹⁾

2. 지원 실적

수출물류비의 연도별 지원 실적은 농식품 전체 기준으로 1990년 4억 5천만 원에서 2008년 327억 원으로 73배 증가하였다. 품목류별로 화훼류가 1996년 1억 5천만 원에서

2008년 54억 원으로 37배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과실류도 1990년 4억 5천만 원에서 2008년 97억 원으로 21배 증가했다.

반면, 축산물(2000년 3억 8천만 원에서 2008년 13억 원으로 3배, 채소류는 2000년 56억 원에서 2008년 110억 원으로 2배, 가공식품인 김치류는 2000년 20억 원에서 2008년 30억 원으로 1.5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증가율이 적다.

품목류별 지원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채소류가 34.9%로 가장 높고, 과실류 30.8%, 화훼류 18.1% 순이다. 2004년에는 지원비중이 과실류(37.2%), 채소류(29.6%), 화훼류(17.3%), 김치류(10.4%) 순이었으나 2008년에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장류와 전통주는 2008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업체 수 및 평균지원액은 2006년 256개 업체 1.05억 원에서 2008년 270개 업체 1.17억 원으로 증가했다.

III. 분석자료 및 방법

중앙정부의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성과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수출업체별로 지원한 수출품목별 물류비 지원금액, 수출물량, 수출액에 대한 원자료이다.¹⁰⁾

물류비 지원 품목 수는 2004년 74개에서 2008년에 104개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과실류는 11개에서 14개로, 채소류는 32개에서 39개로, 화훼류는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품목부류별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과실류 13.46%, 채소류 37.50%, 화훼류 12.5%, 축산물 10.58%이다.

본 연구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수출실적의 관계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대상 품목은 과실류, 채소류, 김치류, 화훼류, 축산물, 인삼류에 해당되는 품목들이다. 2008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한 가공밥, 곡류, 장류, 전통주는 표본수의 제한 및 물류비 지원기간이 짧으므로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방법은 중앙정부에서 2004~2008년까지의 물류비 지원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물류량

9) 2008년 기준 품목류별 물류비 kg당 지원단가는 과실류 223원, 화훼류 337원, 채소류 192원, 김치류 119원, 인삼류 1,755원, 축산물 86원, 곡류(쌀) 97원, 가공밥 98원, 전통주류 134원, 차류 2,926원, 장류 159원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품목당 191원의 수출물류비가 지원됨.

10)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2008년 기준 288억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2009.9) 응답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품목별 지원액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함.

수출금액으로 나는 수출단가를 도출하고, 물류비지원 기본 단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전체 물류비 지원금액을 도출하였다.¹¹⁾

수출물류비 지원 원자료에 대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물량, 수출금액, 수출단가, 기본단가, 지원금액의 이변량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수출물량과 수출액에 대한 수출단가, 물류비지원 기본단가, 물류비지원금액과의 상관계수 및 유의성을 도출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유의성이 발생한 품목은 수출물량, 수출금액이 수출단가, 기본단가, 지원금액과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하였고,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에 따른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별하였다.

Table 1. The trend of product groups supported for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unit: EA,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계 | 74 (100.0) | 83 (100.0) | 80 (100.0) | 91 (100.0) | 104 (100.0) |
| 과실류 | 11 (14.86) | 12 (14.46) | 12 (15.00) | 12 (13.19) | 14 (13.46) |
| 채소류 | 32 (43.24) | 37 (44.58) | 33 (41.25) | 38 (41.76) | 39 (37.50) |
| 김치류 | 1 (1.35) | 2 (2.41) | 2 (2.50) | 2 (2.20) | 2 (1.92) |
| 화훼류 | 9 (12.16) | 9 (10.84) | 9 (11.25) | 9 (9.89) | 13 (12.50) |
| 축산물 | 7 (9.46) | 8 (9.64) | 9 (11.25) | 7 (7.69) | 11 (10.58) |
| 인삼류 | 14 (18.92) | 15 (18.07) | 15 (18.75) | 18 (19.78) | 18 (17.31) |
| 가공밥 | - (0.00) | - (0.00) | - (0.00) | - (0.00) | 1 (0.96) |
| 곡류 | - (0.00) | - (0.00) | - (0.00) | 5 (5.49) | 1 (0.96) |
| 장류 | - (0.00) | - (0.00) | - (0.00) | - (0.00) | 1 (0.96) |
| 전통주 | - (0.00) | - (0.00) | - (0.00) | - (0.00) | 4 (3.85) |

Note 1) the numbers in the parenthesis are ratios.

11) 인센티브에는 항공수송, 휘모리브랜드, 신시장개척, 정부지원단지 인센티브가 포함됨.

IV. 분석결과

1. 품목부류별

농축산물 수출 품목부류별로 수출단가, 기본단가, 지원금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품목부류별로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과실류, 채소류 등 품목 부류별 전체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은 수출단가, 기본단가, 지원금액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 물류비지원과 수출실적의 상관관계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다만, 채소류의 수출금액과 축산물의 수출물량은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과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물류비 지원과 수출실적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whole groups.

| 부류 | 구분 | 수출 단가 | 기본 단가 | 지원 금액 |
|-----|-------|---------------------------------------|-----------------|------------------|
| 과실류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273 유의확률(양쪽) 0.657 | -0.542 0.345 | 0.809 0.097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153 유의확률(양쪽) 0.805 | -0.519 0.370 | 0.821 0.088 |
| 김치류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153 유의확률(양쪽) 0.806 | -0.240 0.698 | 0.830 0.082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489 유의확률(양쪽) 0.403 | -0.516 0.374 | 0.612 0.273 |
| 인삼류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765 유의확률(양쪽) 0.132 | 0.031 0.961 | -0.050 0.937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072 유의확률(양쪽) 0.908 | 0.617 0.267 | 0.403 0.501 |
| 채소류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488 유의확률(양쪽) 0.404 | -0.410 0.493 | 0.759 0.137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633 유의확률(양쪽) 0.252 | -0.252 0.682 | 0.971** 0.006 |
| 축산물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854 유의확률(양쪽) 0.066 | 0.799 0.105 | 0.989** 0.001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584 유의확률(양쪽) 0.302 | 0.795 0.108 | 0.855 0.065 |
| 화훼류 | 수출 물량 | Pearson 상관계수 0.611 유의확률(양쪽) 0.274 | -0.402 0.503 | 0.859 0.062 |
| | 수출 금액 | Pearson 상관계수 0.577 유의확률(양쪽) 0.308 | -0.382 0.526 | 0.800 0.104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0.05

2)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0.01

2. 품목별

가. 과실류

과실류 각 수출 품목별로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등 수출 실적에 대해 수출단가, 지원 기본단가, 지원금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단가와 기본단가와와의 상관계수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에 대한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의 상관계수는 유의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채소류

채소류 품목들 중에서 수출물량 수출실적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유의성이 없는 품목은 파프리카로 분석되었다. 파

Table 3.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fruit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감귤(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금귤(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단감(신선)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배(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복숭아 (넵타린포함, 신선)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사과(신선)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유자껍질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유자즙(20브릭스 이하 과실주스)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유자즙 (기타과실주스)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유자차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포도(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한라봉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프리카는 수출금액 측면에서도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성과 지원액간의 관계에 의미성을 두기 어렵다.

채소류에서 수출금액 성과 측면에서 지원금액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고구마(신선), 깻잎 등, 단무지, 멜론(기타, 신선), 무(신선, 냉장), 수박(신선), 양송이버섯(신선, 냉장), 양파(신선, 냉장)이다.

김치류에서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는 수출물량과 수출금액과의 상관관계 유의성이 낮아 물류비 지원과 수출증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냉동김치는 지원금액에 대한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4.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vegetable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가지(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결구상치(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고구마(신선)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고추(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고춧가루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깻잎 등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파리고추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넵타리버섯(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단무지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대파(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마늘(기타)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멜론(기타, 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무(건조)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무(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Table 4.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vegetable group (continued).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방울토마토(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배추(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 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새송이버섯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수박(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시금치류(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양배추(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양송이버섯(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양파(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오이류(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절임배추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초본류딸기(냉동)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초본류딸기(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콩(비그나, 파세러스, 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토마토(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파프리카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팽이버섯(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호박(신선,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Table 5.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Kimchi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김치 (냉동하지 않은 것)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냉동김치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화훼류

화훼류에서 수출물량 실적과 수출물류비 지원금액 상관관계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국화(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이다.

수출금액 실적 측면에서 물류비 지원금액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품목은 국화(절화, 신선), 백합(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 카네이션(절화, 신선)이다.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 양측 실적 모두 물류비 지원과 관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품목은 국화(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이다.

라. 축산물

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에서 수출물량 측면의 실적과 물류비 지원금액의 상관계수에서 유의성이 없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대부분의 수출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돼지고기(냉동, 기타)의 수출액은 지원금액과 상관관계가 낮

Table 6.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flower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국화(절화, 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난초(산식물)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 백합(절화, 신선)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선인장류(산식물)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아이리스(절화, 신선) 기타 절화 | 수출물량 | ○ | ○ | ○ |
| | 수출금액 | ○ | ○ | ○ |
| 양란(절화, 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워싱턴야자(산식물) 기타 화훼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장미(절화, 신선)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카네이션(절화, 신선)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Table 7.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meat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닭고기(500g이하, 미절단, 냉동) | 수출물량 | ○ | ○ | ○ |
| | 수출금액 | ○ | ○ | ○ |
| 닭고기(삼계탕: 밀폐용기의 것)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닭날개(냉동)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돼지고기(냉동, 기타)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돼지고기 (냉동, 넓적다리, 어깨살 뼈채 절단)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오리, 거위, 기니아 (절단육, 냉장)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오리고기(절단, 냉동)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인삼류

인삼류에서 수출물량과 지원금액의 유의성이 낮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품목은 기타 백삼 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인삼음료, 홍삼(본삼, majorroot, redgingseng), 홍삼차이다.

수출금액 기준 실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유의성이 없어 지원금액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품목은 기타 백삼 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기타 홍삼 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인삼음료, 인삼차, 홍삼(본삼, majorroot, redgingseng), 홍삼분말(홍삼분, 타브렛, 캡슐 이외 기타), 홍삼엑스, 홍삼차, 홍삼타브렛, 홍삼캡슐이다. 특히,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모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품목은 인삼음료와 홍삼차이다.

3. 분석결과의 유형화 및 시사점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실적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측면에서 수출증감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은 아래 표와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물량 실적에서 관계가 낮은

Table 8.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xportation and supporting factors: flower group.

| 품목 | 수출실적 | 수출단가 | 기본단가 | 지원금액 |
|-------------------------------------|------|------|------|------|
| 기타 백삼 조제품 (인삼차 이외 기타)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기타 홍삼 조제품 (홍삼차 이외 기타)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백삼(미삼, gingsengtail, whitegingseng)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백삼(본삼) 태극삼 포함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백삼분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인삼엑스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
| 인삼음료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인삼차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인삼타브렛, 인삼캡슐(백삼)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홍삼(본삼, majorroot, redgingseng)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홍삼분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 홍삼분말(홍삼분, 타브렛, 캡슐 이외 기타)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홍삼엑스 | 수출물량 | | | ○ |
| | 수출금액 | | | |
| 홍삼차 | 수출물량 | | | |
| | 수출금액 | | | |
| 홍삼타브렛, 홍삼캡슐 | 수출물량 | | ○ | ○ |
| | 수출금액 | | | |

Note 1) ○ presents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5%

품목들은 주로 인삼류와 채소류의 파프리카, 화훼류 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실적 모두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관계성이 낮게 나타난 품목은 김치류의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인삼류의 인삼음료와 홍삼차, 채소류의 파프리카, 화훼류의 국화, 선인장류, 장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품목들의 수출실적 증감은 물류비 지원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에 대한 물류비를 증액 지원한다거나 감축시킬 경우 수출액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9. The brief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of correlation coefficient: low significant case.

| 품목류 | 지원금액과 상관관계 유의성이 낮은 품목 | | |
|-----|-----------------------------------------|-----------------------------------------------------------------------------------------------------------------|-----------------------------------|
| | 수출물량 실적 | 수출금액 실적 | 수출물량+수출금액 |
| 과실류 | 없음 | 없음 | 없음 |
| 김치류 |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
| 인삼류 | 기타 백삼 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인삼음료, 홍삼(본삼), 홍삼차 | 기타 백삼 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기타 홍삼 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인삼음료, 인삼차, 홍삼(본삼), 홍삼분말(홍삼분, 타브렛, 캡슐 이외 기타), 홍삼엑스, 홍삼차, 홍삼타브렛, 홍삼캡슐 | 인삼음료와 홍삼차 |
| 채소류 | 파프리카 | 파프리카, 고구마(신선), 깻잎 등, 단무지, 멜론(기타, 신선), 무(신선, 냉장), 수박(신선), 양송이버섯(신선, 냉장), 양파(신선, 냉장) | 파프리카 |
| 축산물 | 없음 | 돼지고기(냉동, 기타) | 없음 |
| 화훼류 | 국화(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 | 국화(절화, 신선), 백합(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 카네이션(절화, 신선) | 국화(절화, 신선), 선인장류(산식물), 장미(절화, 신선) |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물량이나 수출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상관관계가 낮은 품목들은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두는 것이 지원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저가 수출을 야기하여 수출경쟁력 기반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향후 WTO/DDA 협상 진전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감축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도 직접 지원이 어렵고 수출물류비 지원의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감축 및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품목을 단계별로 폐지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류비를 지원한 실적과 수출실적과의 관계성을 검증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수출증감 관계가 낮은 품목부터 우선 대상 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농축산물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과 수출실적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의 관계가 적은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출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실적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관계가 낮은 품목들은 주로 인

삼류와 채소류의 파프리카, 화훼류 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물량, 수출금액 모두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품목들은 인삼음료와 파프리카, 국화 등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관계성이 낮은 품목들은 물류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물류비 지원을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한계점 및 개선과제를 가진다. 첫째,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5개년간의 실적만을 가지고 상관계수만을 분석하고 있는 데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도의 지원실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농식품 수출은 수출물류비 지원액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여건, 수출국가와의 거래, 수출국의 공급여건, 환율 등의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수산물유통공사(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 개선 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 문헌

1. Choi SG, Kim TH, Kim KP, Kim SG, Kim YJ, Kook SY, Kwon OB, Jung DH. 2009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of Agro-foo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2. Choi YG, Park HH. 2004. A Study for the Subsidize of Transportation Cost due to WTO/DDA. Global Agriculture Policy Institute. [in Korean]
3. Joo MB, Lee HD, Ma CM. 2007. A Study of Logistic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Marine Product Exporta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in Korean]
4. Kim BR, Park SJ. 2005. A Study of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Agencies and Supporting Program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5. Kwon YD, Park KB. 2006.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ungnam.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in Korean]
6. Lee YS, Kim SH, Choi WY. 2009.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quarantine,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of Korean Pear.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og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Korean]
7.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8. The Improve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Agro-food Exportation. [in Korean]
8.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9. Trend and Statistics of exports and imports of Agro-food. [in Korean]
9.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ach year. Main Statistics for the indu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Korean]
10.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2008. The details supporting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